



빅뱅 멤버 태양이 3년 2개월여 만인 16일 정규 솔로 3집을 발매했다.(왼쪽)·원더걸스 출신 선미는 오는 22일 신곡 '가시나(Gashina)'를 발매한다.(가운데)·현아는 오는 29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 2세대 아이돌 솔로 활동 러시

‘빅뱅’ 태양·‘샤이니’ 태민 등... 해체한 2세대 인기 걸그룹 출신들까지

엑소·워너원 등 3·4세대 아이돌이 독재하는 가운데 2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거 솔로로 출격한다. 최근 이미 자리를 잡은 인기 보이그룹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룹과 다른 색깔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음악적 욕심과 함께 장기간으로는 속한 팀의 색깔을 풍성하게 해주는 등 시너지도 기대된다. 우선 ‘빅뱅’ 멤버 태양이 눈길을 끈다. 그는 3년 2개월여 만인 16일 정규 솔로 3집 ‘화이트 나이트(WHITE NIGHT)’를 발매했다. 솔로 활동에서 주로 R&B 음악을 선보인 태양은 그동안 이 장르에 최적화된 유연하면서도 색다른 무대 연출을 통해 R&B 퍼포머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타이틀곡으로 ‘날랑’을 내세운 이번 앨범에서는 R&B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류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도 1년 6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다. 태민은 이달 중 세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동시에 오는 26~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솔로 콘서트 ‘오프식’도 연다. 타이틀 ‘오프식(OFF-SICK)’에는 진부하고 뻔한 콘셉트, 퍼포먼스 등 지켜온 것들(sick of it)은 깨버린(off) 새로운 공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곱상한 외모와 달리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태민은 솔로 활동을 통해 실력과 인기를 확인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일본 부도칸에서 열

린 첫 단독 공연에는 2만8000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그룹 비스트가 재편된 ‘하이라이트’ 멤버 이가람은 무려 8년 만에 솔로 활동에 나선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최근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가람이 이달 4일 새 솔로 앨범 ‘원’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가람은 2009년 비스트로 데뷔 직전 SJ라는 예명으로 솔로 활동을 한 바 있다. ‘빅뱅, 샤이니, 하이라이트’는 2세대 아이돌 그룹의 대표주자들이다. 팀으로 치고 올라오는 3·4세대 엑소·워너원과 달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솔로 활동에 욕심을 낼 법한 안정된 팀 활동이 기반이 되고 소속사에서도 이를 지원할 여유가 있다. 아울러 팀 내 다른 멤버들과 시너지를 내는 동시에 서로 음악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태양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의 단짝 친구이자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에게 자극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용이가 솔로 앨범을 내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자극이 된다. 빅뱅으로서 멤버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의 활동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빅뱅, 샤이니, 하이라이트는 각각 팬덤을 구축한 팀들이지만 만큼 이들의 선의의 경쟁이 가요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활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3·4세대 아이돌들과 달리

2세대 아이돌들은 노련함을 갖추고 있다”면서 “솔로 활동은 각자의 그 노련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기존 아이돌 음악과 다른 색깔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가요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 솔로 아이돌들은 이미 해체한 2세대 인기 걸그룹 출신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원더걸스 출신 선미는 오는 22일 신곡 ‘가시나(Gashina)’를 발매한다. 앞서 선미는 원더걸스 탈퇴 이후 지난 2013년 솔로 앨범 ‘24시간이 모자라’로 청순한 색채를 보여주며 솔로 가수로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고, 2014년에는 첫 번째 미니앨범 ‘폴 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입지를 다졌다. 이후 원더걸스에 재합류했지만 그녀의 솔로 활동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이번 신곡은 선미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처음 내는 곡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다. JYP와 라이벌인 YG엔터테인먼트의 테디가 설립한 독립 레이블 ‘너블랙 레이블’과 작업하는 것도 이슈다. 포맷 해체 전에도 솔로 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리던 현아는 오는 29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올해 북미 8개 도시 팬미팅 투어를 성료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도 솔로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비밀’ ‘빨개요’ 등 글로벌 히트곡도 보유하고 있다. 현아는 원더걸스 원년 멤버로, 선미와 선의의 경쟁도 기대된다. /뉴시스

##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마무리 복귀할 듯

로젠탈 팔꿈치 통증으로 DL행 MLB.com, “오승환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팔꿈치 대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트레이버 로젠탈(27)의 부상 때문이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지난 18일(한국시간) 오른 팔꿈치에 붓증을 호소한 로젠탈을 1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트리플A에서 뛰던 우안 투수 루크 위버(24)를 콜업했다. 로젠탈은 지난 17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팀이 4-2로 앞선 9회 말 등판했다. 그는 잔더 보가츠에게 솔로포를 얻어맞는 등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2실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로젠탈의 난조 속에 결국 4-5로 역전패했다.

로젠탈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팔꿈치 상태 탓이었다. 로젠탈의 부상으로 마무리 투수 공백이 생기면서 오승환이 다시 뒷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로젠탈의 공백으로 예전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이 9회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승환은 불박이 마무리 투수였던 로젠탈이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올 시즌을 주전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 오승환은 6월 들어 극심한 난조를 보였고, 결국 7월부터는 로젠탈에게 마무리 투수 자리를 넘겨줬다. 올해 51경기에서 52이닝을 소화한



오승환은 1승 5패 18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 중이다. 오승환은 8월에 나선 6경기에서는 5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 과거의 위력을 되찾고 있다. /김민근기자

## 네이마르 빠진 바르샤, 수아레스마저 부상 이탈

FC바르셀로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당분간 전열에서 이탈한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18일(한국시간) 홈페이를 통해 수아레스가 오른 무릎 부상으로 4주 가량 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아레스는 지난 17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슈퍼컵)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0-2로 패해 레알 마드

리드에 우승컵을 내줬다. 수아레스는 20일 레알 베티시아와의 2017~2018시즌 프리메라리가 개막전을 시작으로 29일 알라베스전, 다음달 9일 에스파뇰전을 모두 건너뛸 계획이다. 네이마르를 파리생제르맹(PSG)으로 떠나보낸 바르셀로나는 확실한 득점원인 수아레스마저 빠지면서 리오넬 메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김민근기자

수아레스의 부상으로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준비 중인 우루과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루과이는 오는 31일 아르헨티나, 다음달 5일 파라과이와의 남미예선전을 수아레스 없이 치러야 한다. 한편 바르셀로나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 역시 사타구니 부상으로 레알 베티시아 출전이 어려워졌다. /김민근기자

## 김명민·오달수 다시 뭉친다... ‘조선명탐정3’ 내년 개봉

배우 김명민과 오달수가 또 한번 호흡을 맞추는 영화 ‘조선명탐정3’(감독 김석운)이 모든 캐스팅을 완성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소박스가 지난 18일 밝혔다. ‘조선명탐정3’에는 앞서 두 작품에서 각각 김민과 ‘서필’을 맡아 좋은 호흡을 보여준 김명민과 오달수를 비롯해 김지원·이민기·김병 등이 출연한다. 김지원은 김민·서필과 호흡을 맞춰 수사에 나서는 의문의 여인을 연기하고, 이민기는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 ‘흑도포’를, 김병은 자객 ‘천무’를 맡는다. 김석운 감독은 “이전 작품보다 웰리티가 높어진 작품이 되리라 믿는다. 든든한 배우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민은 “너무 기다



려왔던 촬영’이라며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 덕분에 시리즈 3편까지 오게 됐다. 전 시리즈를 뛰어넘는 재미를 드릴 수 있게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겠다”고 했다. 영화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478만명),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2015·387만명)에 이어 만들어지는 시리즈 세 번째 편이다. 김명민과 오달수는 두 작품 모두에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